

'시민과 지역의 문화거점, 책의 도시 전주'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신년브리핑 통해 도서관·평생학습 분야 4대 추진 전략 제시

전주시가 2026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답게 시민의 독서와 학습 문화를 확장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25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신년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지역의 문화거점,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도서관·평생학습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모두가 누리는 이용자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 강화 △독서에서 산업으로, 책문화산업 활성화 △미움과 지혜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이다.

먼저 시는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페어 △전주독서대전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등 책을 매개로 한 3대 책문화축제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과 책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시는 책을 매개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나눔의 독서 문화를 조성한다.

특히 시는 △전주시민서고 △책사줄개 △서(書)프라이즈 △지구책장 △시



전주시는 25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지역의 문화거점, 책의 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도서관·평생학습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민가치서가 등의 '함께라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책문화 자원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독서 후유 문화를 형성하고, 독서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눔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책문화를 기반으로 도서관여행과 출판학교 등 책문화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2538명이 참여한 전주도서관 여행은 올해 정원(덕진공원)과 지역 서점을 결합한 새로운 여행코스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전주 대표 3대 책문화축제 연계 △특수학급 대상 '책누리' △직장인 대상 '워케이션' 등 특별한 도서관 여행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책과 함께 머무는

숙소를 중심으로 지역서점과 북카페 등과 연계해 사색하고 휴식하는 체류형 '북스테이 도서관 여행'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시민들의 책 24권을 출판한 '전주출판학교'도 오는 4월부터 개설돼 다양한 생생형 AI 도구인 Chat GPT, Gemini, 부크, Canva 등을 활용한 전자책 방식의 독립출판물 과정으로 운영된다.

동시에 시는 시민이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지원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또 건지도서관 주차장 화승 사업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133개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관구입비 지원, 시설 개선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일상 속 특별한 열린문화 공간으로 독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주제를 살려 13개 작은도서관에서 총 50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희성 기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시군구의회장협의회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제안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회장 김현기)가 지난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캠프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채택했다.

남관우 회장은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86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시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택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국방벤처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 가저

전주시가 탄소·수소 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벤처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국방벤처 협약기업인 ㈜옵토웬(대표 양계도)과 ㈜편잇(대표 최인형)을 차례로 방문해 생산 현장에 시찰하고, 지역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숙희 시 경제산업국장과 양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준비 중인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방위사업청 주관) 공모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번째 방문지인 ㈜옵토웬은 지난

2024년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3기)에 선정된 유망기업으로 VCSEL(수직공진 표면방출 레이저), 고출력LD칩과 바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 레이저 회사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방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VCSEL 상용화에 성공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편잇은 게임 기반 XR(확장 현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훈련 시뮬레이션과 박물관 체험형 콘텐츠 등 융합형 콘텐츠 개발·수출하며 디지털 기반 수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시뮬레이터를 시연하며 디지털트윈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국방 훈련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권희성 기자

기술기반 지역 산업 생태계 중점 육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가상융합·미디어테크 등 3대 기술기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이 올해 인공지능 산업부터 가상융합산업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화영상산업 등 기술기반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각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인재육성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25일 진흥원 신년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과 가상융합, 미디어테크 등 3대 기술기반의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각 산업별 추진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진흥원은 전주와 전북 지역이 AI 고성장 분야인 농생명과 제조, 바이오 등의 특화산업이 밀집돼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과 확산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



증사업에 도전한다.

진흥원은 향후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도입·작용 시 △위협도·안전성 분석 △컨설팅 △검·인증 지원 등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파악부터 AI 안전성·신뢰성 분석 및 설계, 시험·심사, 진단·컨설팅, 검·인증 발급으로 이어지는 윈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진흥원은 지역 내 디지털 신기술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ICT 인보케이션 스퀘어 사업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교육 커리

클를 집중하고, 직접적인 개발 인력과 제작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룰 지역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진흥원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가상융합 산업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향후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를 통해 △기술 실증 △R&D 연계 지원 △사업화·투자·판로 지원 등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진흥원은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조성되는 자-타운(G-Town)을 중심으로 AI·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트윈·퍼지컬 AI 등 첨단기술의 산업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핵심 실증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본격화

전북지역 장애인과 재활 환자를 위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3월 사업부지 철거공사 후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지난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각각 선정됐으며, 이후 치료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계 건립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기존 560억 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764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말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 98억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권역 재활병원은 예수병원 제2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7층에 연면적 1만71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150병상의 입원 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 기능을 갖춰 향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